



함께
토론
해요



물 절약
칼럼

물부족국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글_ 이지은 (학생)

지금 우리나라는 물부족국가로 50여년 후에는 완전히 물이 없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힘든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그 사실을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이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사실을 알고서도 물을 함부로 쓰는 사람들이 정말 불쌍하다. 미래에 대해 눈을 조금만 돌려보아도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물을 평평 쓰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의 편안함을 추구해서 물을 함부로 쓰고 있지만 몇 년 후에는 아주 후회할 것이다. 그 때에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준비를 철저하게 해놓아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물부족국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는 우리 모두가 머리를 모아 고민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그럼 물부족국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Re]

- *경 이 : 나중에는 한강이 말라버릴지도 몰라요.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물을 절약해서 나중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지 않겠어요?
- *전병윤 :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강수량은 많지만 그것이 여름 장마철에 한정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물이 풍부하다고 할 수 있지만 봄철은 '봄가뭄'이라고 할 정도로 물의 수급이 여름에 비해 못하다고 하네요. 물론 여름에 비해 물 사용량은 적지만 이런 점에 착안하여 계절별로 수도물 가격의 차별화를 두는 것은 어떨까요?
- *김용희 : 물부족의 근본적인 원인을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스스로가 귀하다는 생각을 깨달을 때 많이 만인이 함께 물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의 의식을 먼저 높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물을 부르면...

글_ 권덕희 (공무원)

지구상의 생물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물을 마시고 섭취하고 배설을 거듭하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간다. 물은 서로 다른 곳에 분포되어 있지만 그 역할은 매우 다양하여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생명체로 작용하는 것이다. 생물마다 물을 받아들이는 감정은 각기 다르지만 물에 대한 고마움에 대하여는 같을 것이다.

물은 자기감정에 대하여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그 답은 간단하다. 적으면 아껴 쓰고 풍족하면 많이 쓴다고 할 것이다. 또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에게 봄과 같은 활력을 준다고 대답을 할 것이다.

물은 그 자체만으로는 인간에게 크게 기여하지는 못한다. 다만 우리가 물을 섭취하고 유용하게 이용할 때 물의 효용가치에 따라 그 대답은 가장 따뜻하게 들려오는 것이다.

물은 더위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찾을 때도 있지만 때 아닌 시기에 태풍과 폭우의 모습으로 찾아올 때도 있다. 이렇듯 물은 그 모양이나 색깔이 계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물을 사랑하는 방법도 계절과 시간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름에는 물을 대하는 시간이 많지만 겨울에는 그리 많지 않다. 겨울동안 물에 대한 그리움이 여름에 싹터서 그런 것일까? 아무튼 사계절동안 깨끗한 물 없이는 우리의 몸과 마음은 건강하게 해소되지 못할 것이다.

물은 아끼고 사랑한 만큼 그 대답은 따뜻함으로 돌아온다. 사람도 미워하면 얼굴을 찡그리듯이 물도 사랑하지 않으면 뜻하지 않는 불청객의 모습을 하고 찾아오는 것이다.

봄이 오는 소리에 맞추어 가득 찬 사랑으로 물을 불러 보자. 그 대답은 봄별과 같은 따뜻한 미소로 메아리쳐 올 것이다.



Address: http://www.ilovewater.or.kr

물을 아껴 씬시다

글_ 양다솜 (학생)

첫째, 세수할 때 물 받아서 하기 엄마가 더럽다고 한다고요? 씻어서 사용 하면 되죠.
 둘째, 비누칠 할 때 물 안 틀고 하기 전혀 안 해 본거라고요? 그럼 이제부터 실천해 봐요.
 셋째, 물 풍선 장난치지 않기! 물 풍선도 물을 낭비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넷째, 빗물받기! 무슨 뜻이나구요? 빗물을 받아서 연못을 만들어보세요, 우리 학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물고기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다섯째, 언제 어디서나 물 절약하기!! ^^
 언제 어디서나 이 다섯 가지를 알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는 오빠 언니 동생들이 있어요. 말로만 물 절약 하지 말고 실천 행동으로 물 절약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우리나라가 물부족국가가 되기 전까지, 아니 물풍족국가가 되어도 이 물 절약은 언제나 지켜야 합니다. 물 절약하는 우리나라, 물풍족국가 되는 날 까지~ 물 절약 안하면 다시 돌아온다.^^



물사랑 제안

글_ 이희정 (남양주시 상수도사업소)

남양주시 상수도사업소에서 물절약을 실천하고 있는 물 지킴이 이희정입니다.
 환경부 물절약 페이지를 유심히 보던 중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가장 많은 양의 물이 소비되는 것 중 하나가 세탁입니다.
 세탁을 하면 보통 3번 이상 행굼이 이루어지고 세제를 사용하여 세탁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어떠한 세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물 절약 및 환경파괴를 줄일수 있습니다.
 중요한 실천 사항 중 첫째, 가루세제 대신 물비누를 사용하여 세탁합니다. 기존의 물비누를 사용하게 되면 적은 양으로 세탁이 잘 될 뿐 아니라 공해가 없어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루세제를 계속 사용 시 세탁한 물이 하천으로 들어가 부영양화 현상으로 발전 하천수를 부패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실천사항 두 번째, 세탁 행굼 시 수위를 조정하여 사용하면 불필요한 물을 절약 할뿐 아니라 세탁기 부하를 줄이므로 즐거운 세탁을 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한국상수도협회와 환경부가 공동 운영하는 물사랑 홈페이지(www.ilovewater.or.kr)에서 원문 그대로 발췌하였습니다.



Address: http://www.environment.or.kr

물사랑 일기



2004_2_5

부모님께 배운 소중한 습관

hahamari (전문직) | 지금은 함께 생활할 수없는 부모님이지만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습관들을 물려주셨다. 넉넉하든 그렇지 않은 간에 항상 아껴 쓰고, 절약하시는 생활들이 우리 자식들에게도 크게 영향을 미쳐 우리 형제들도 모두들 낭비라곤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도 조금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편안해지면 나도 모르게 게을러지고 아껴 쓰기에 대한 관심이 덜해지고 만다. 지금도 정신적으로 나태해지려는 마음을 추슬러 보려고 이 일기를 쓴다. 물을 아껴 쓰고 전기를 절약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옛날 부모님께서 그리 하시던 모습들이 생각이나 추억에 젖어보기도 한다. 요즘은 정말 여기저기에서 힘든 생활고에 아파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 부모님들이 물려주신 강한 정신력, 생활력으로 이웃과 함께 서로 도와가며 웃으며 살았으면 좋겠다.



2004_3_5

생활 속 물절약 실천방법

tree235 (주부) | 평소 물을 헤프게 쓰지 않으려 노력하는 편이다. 가령 아체나 쌀 씻은 물을 운동화나 걸레 등 허드레 빨래하는데 이용을 하고 목욕탕에서 샤워나 세수한 물 등을 변기에 다시 이용을 한다든지. 빗물을 받아두었다가 화초에 물을 주기도하고, 김치를 담글 때 아체 씻은 물을 모아두었다가 아이들 운동화 빨 때 이용하고, 아침에 목욕탕에서 쓴 물을 욕조에 그냥 모아두었다가 변기물을 내릴 때 이용한다.

2004_3_16

고마움을 잊지 말자!

phj40kr (농축수산업) | 언젠가부터 인간은 물에 대한 고마움을 잊은 것 같습니다. 차갑고 맛있던 우물물과 샘물이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새로운 세기, 새로운 전쟁, 희망과 절망... 물의 오염은 우리 마음의 오염을 나타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현대 문명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세계는 어디로 가려 하는 걸까요?

2004_3_17

수질오염을 예방하자!

hong3685님 (교사) |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에서 환경공예부를 담당하는 교사입니다. 천연비누의 사용으로 합성세제의 사용을 줄이는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샴푸와 린스 사용을 자제하게 하기위한 실천카드를 만들어서 천연비누로 샴푸, 식초로 린스하기입니다. 한 달간 카드작성을 해서 소감문을 적어내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할 때는 매우 힘들 것 같았는데 저는 이제 샴푸와 린스를 욕실에서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머리 결도 너무 좋아졌습니다. 아직은 재료비가 좀 들지만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동참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천연샴비누를 만들어서 사용해 보세요. 비듬도 사라지고 가려움도 사라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동아리 학생들을 이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을 시키려고 합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 학생들에게 물 사랑이 느껴지길 바랍니다.





2004_3_22

물아, 미안해...

ppeeyy1 (초등학생) | 나는 물을 쓸 때는 아껴 쓰지 않고 낭비했다. 엄마께서도 항상 낭비 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난 버릇이 되어서 그런지 항상 낭비했다. 그래서 엄마께서 나에게 물의 소중함을 가르쳐주셨다. 물은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말이다. 물이 없다면 목도 많이 마르고 씻지도 못해서 병도 걸리고, 여러 가지 피해를 준다고 하셨다. 또 이제 미래에는 곧 물이 없어질 거라고 하셨다. 자연의 물은 우리에게 이로운 것도 준다. 모든 식물들은 비를 맞고 자라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연의 물은 우리에게 이로운 것만 해주는 것은 아니다. 홍수나 비가 많이 오면 집이나 재산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게 된다. 물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달려 있는 것 같다. "물아~! 이제는 너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알게 되었어. 이제부터 나는 물을 아껴 쓰고 낭비하지 않고 잘 쓸게." 나는 물의 소중함을 깨닫고 나서, 물을 아껴 쓰고 낭비하지 않게 되었다.

2004_3_22

일본인에게서 배웠다.

starriv님 (고등학생) | 아버지께서 말씀해주셨다. 독일에 가셨다 돌아 오셨을 때 공항에서 어떤 소년이 손을 씻고 있었는데, 만약 우리였다면 물을 최대한으로 틀어 놓고 씻었을 것을.. 아주 약하게 틀어놓고 손을 부비면서 깨끗이 씻어냈었다고 한다. 전범이 되는 사람도 평소에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아버지께서 그에게 다가가서 칭찬을 해주려고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는 손을 털면서 일행과 갈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들은 일본인이었다.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다. 물부족국가라고 텔레비전에서 매일 선전해대도, 그렇지 않은 일본인보다 물낭비가 심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시는 물을 줄이니.. 물을 재활용하니.. 그런 것도 좋지만 우선 평소에 마시는 물이나 씻는 물부터 조금씩 줄이면서 생활하는 게 다 절약하는 습관을 쉽게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항상 물의 소중함을 깨달으면서 살아가야겠다.

2004_3_22

나를 반성하며...

seny58님 (초등학생) | 3월 22일. 오늘은 세계 물의 날이다. 오늘 따라 물을 절약해야겠다는 마음이 더욱 더 들게 된다. 얼마나 물을 낭비했으면 세계 물의 날이란 날이 생기게 될까? 우리나라도 물부족국가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낭비를 해야 할까? 나도 1, 2년 전만해도 물을 평평 쓰는 아이였다. 그렇지만 이제 매일 반성하고 있다. 샤워는 이틀에 한번, 세수할 때, 양치할 때 물을 받아서 하고 '오늘은 물을 얼마나 낭비했나?' 하고 생각하며 반성을 하곤 한다. 내가 생각해도 우리나라 물낭비가 심한 것 같다. 물은 소중한 자원이며 우리의 생명줄이기도 하다. 물을 안 먹고는 3일 정도밖에 버티지 못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이처럼 소중한 물.. 쓸데없이 물을 가득 받아 놓고 물장난을 한다거나 장난감 통에 물을 채워놓고 장난을 하고, 우리가 마구마구 쓰는 물.. 우리한테는 소중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다. 앞으로 몇 십 년 후면 물이 다 없어질 거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의 소중한 물을 아껴 써야겠다.

2004_3_24

소중한 물을 아껴자!

rlatnwl222 (초등학생) | 우리에게 물은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 몸의 70% 정도는 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물을 절약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목욕 대신 샤워하거나 주방의 수도꼭지나 욕실의 수도꼭지를 꼭 잠그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왜 물부족국가인지도 확실히 알아야 하고, 3월 22일 물의 날을 기억하고 그날 만큼은 물을 아껴 쓰도록 한다. 그리고 세계가 정한 물의 날이니 전 세계가 물의 날에는 물을 아껴 써야 될 것 같다. 우리나라 물은 많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아껴 쓰지 않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물의 양을 반으로 줄여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먹는 물의 양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세수 할 때나 양치할 때의 물을 반으로 줄이면 2020년도에 찾아올 물부족은 없어지고 물이 풍부해 질 수도 있다. 일주일 아니 한달에 한번씩만이라도 물을 아껴 쓰는 습관을 기르면 우리나라도 물은 부족하지 않게 될 것이다. 물을 아껴 쓰시다!!!